

오피니언 리더들께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미래전환 대표



계엄 이전에 오피니언 리더들에 해당 되는 각계 분들과 식사를 나눈 자리에서 대선 이야기가 나왔다.

“그 사람이 나와서는 떨어질 것이다” “도덕적으로 불안한 자가 아닌가” “밑바닥 출신에 사법 리스크가 있어 끝까지 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다. 문득 노무현 대통령을 돕던 때가 떠올랐다. 최고 학부에 최고권력을 거쳤던 국회의원이었던 분은 내게 “그런 무식한 사람을 뭐 하러 돕나,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이다”며 노무현 후보를 무시했다.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나중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는 노무현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자기 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때부터 서울대 검찰 출신의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계속 추락해갔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노무현,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무시한다. 두 사람 다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문학교 출신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형편없는 자들이 자기들 세계를 밀고 들어온다고 싫어한다.

그들을 따르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정치인 법관 사장 교수 언론인의 사 등은 한 목소리로 나쁜 여론을 형성한다. 서울대 나온 총리출신의 인물을 밀어야지 왜 저런 사람이라고 소리 높인다. 이런 분들과 이준석이라는 선동에 능한 정치인의 휘둘림에 따른 광주 청년들의 이탈로 지난 대선에서 광주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과 민주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윤석열을 지지한건 아니지만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 결과가 윤석열이었고, 윤석열 정권은 계엄 쿠데타를 했고 그 집권기간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후퇴했다. 그제서야 오피니언 리더들은 당황했다.

“아니 윤석열이 이럴줄 알았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

윤석열 계엄, 한덕수·최상목 내란연장, 조희대·지קי원 사법쿠데타, 국민의힘 내부 등 4차례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듯 윤석열과 그 기득권집단들은 끈질기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했다. 그 때마다 그들 내부에서의 저항과 배신이 쿠데타를 좌절시켰다.

‘피로 시작한 너는 피로 끝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는 악행을 함께한 자들이 서로 배신하며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준다.

리처드는 왕위를 얻기 위해 수많은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의 동조자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내부의 불화로 인해 최후를 맞이한다.

연극 리처드 3세는 재현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보수 논객 정규재·김대중 주필이 윤석열과 검찰이 덮어씌운 이재명 악마화를 비난했다. 요즘 많은 보수들이 보수를 떠나 민주를 지지하는 기막힌 현실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간 오피니언 리더들이 얼마나 편견과 왜곡에 차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을 바꾸고 있다. 계속 바꾸기 바란다. 그리고 진실로 더 이상의 왜곡과 오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린다.

“때가 된 사상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기득권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Project Astra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알파벳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I/O 행사에서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딥마인드의 다중영상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AI 음성 비서 역할을 하며 실시간 영상 분석 및 질문 응답을 할 수 있다.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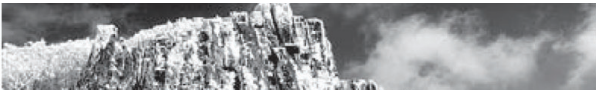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서석대

고대 아테네에는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정치인을 추방하는 ‘도편추방제’가 있었다. 시민들은 해마다 투표를 통해 도편추방제를 실시할 것임을 정했으며, 추방이 결정되면 깨진 도자기 조각에 해당 정치인의 이름을 적어 그를 10년간 도시 밖으로 내쫓았다.

누구보다 ‘공정한 사람’으로 불렸던 아리스테이데스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아리스테이데스에게 한 시골 사람이 도자기 조각을 내밀며 이름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할지 묻는 아리스테이데스에게 시골 사람은 ‘아리스테이데스’라고 말했고, 자신의 이름을 도자기에 적어 넣은 그는 시골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시골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 “나쁜 짓을 해서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리스테이데스가 공정하다고 하니 지켜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아리스테이데스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침략하자 다시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돌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일화는 시골 사람과 같은 정치적 문해력이 결여된 다수의 판단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목소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치



인들은 근거 없는 말을 쏟아내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옮기며, 유권자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사실(facts)이 부정될 때, 사람들은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주장도 사실 여부로 평가되지 않고,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진다.” 그녀는 이러한 상태가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사실 없는 정치에선 책임도, 판단도, 회복도 어렵다. 정치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조차 따지지 않는 사회는, 도편추방제에서 아리스테이데스를 쫓아낸 시골 사람처럼 ‘지겹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제도지만, 그 다수가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역사는 다수가 진실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 번 증명해왔다.

정치도 그렇다.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말이 사실 위에 있는지 검증하는 정치적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 단순한 감정과 갈라치기에 휩쓸려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허공 위에 표류하게 될 것이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社說

상업운전 시작한 전남 해상풍력 반갑다

작은 변화, 더 큰 혁신 이어져야

국내 최대 규모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해상풍력이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의 핵심 전원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산재한 우려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돌입한 전남해상풍력이 우리나라 풍력 산업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해상풍력은 신안군 연안에서 약 9km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민간이 주도한 사업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총 96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0기가 9만 여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억 107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동일 전력량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사업을 주도하는 SK이노베이션 E&S는 1단지 상업가동에 이어 오는 2031년까지 9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상풍력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고용 창출과 전력가격 안정 등 잇점이 많다.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급변하는 시대 국가 경쟁력도 높여준다. 국내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해 석탄과 석유 등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라남도의 지리·환경적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연평균 풍속이 초속 7~8m 이상 유지되는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 6000km가 넘는 긴 해안선과 2000여개에 이르는 섬 등 광활한 해상 공간, 평균 수심 20m 이하인 얕고 평탄한 해저 지형 등을 갖춘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최적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가 이번 상업운전을 기회 삼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장과 제도 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남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시대로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전략과, 지역 사회와 소통을 위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상업운전은 어쩌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다. 더 큰 혁신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활개치는 ‘노쇼사기’ 반드시 뿌리 뽑아야

신뢰 악용한 범죄 방지 안돼

광주의 한 식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를 사칭한 전화 한 통에 2000만 원을 송금했다. 5·18 기념식 직후 후보와 수행원이 방문할 것이란 말을 믿고 고가 양주와 식사를 준비했지만,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식당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소방관 단체 식사를 예약한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준비했으나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역복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지만 다행히 응하지는 않았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쇼 사기’는 이처럼 사회적 긴박함과 신뢰를 교묘히 악용하는 범죄로, 더는 방지해선 안 된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예약 부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자치단체, 선거캠프, 소방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넣고, 업무가 준비에 착수하면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유도한다.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다. 선거, 화재, 국가기념일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교묘히 끌어들이며 의심을 줄이고 신뢰를 심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다.

광주·전남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노쇼 사기는 올해 들어 광주에서만 84건, 전남에서도 10건 이상 접수됐다. 대부분 최근 2개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러, 자영업자 입장에선 심각한 타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기가 지역 상권 전반에 불신과 위축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선결제 시스템이나 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하자니 고객과의 관계가 위축될까 두렵고, 무방비로 대응하자니 같은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허리다. 더욱이 대다수 소상공인은 고물가에 고금리, 소비위축까지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교란하는 사기 수법은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 회복 중인 골목상권에 더 이상 눈물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공공의 의지가 함께 작동해야 할 때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